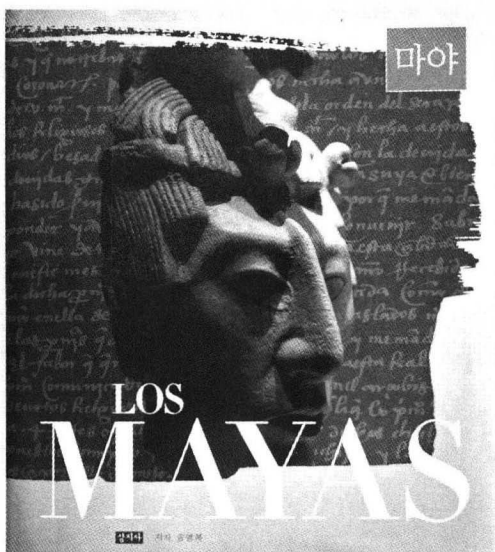


‘발명’ 된 마야문명, 탈서구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방법

글_송병선



《마야》 송영복 지음 | 삼지사 | 336쪽 | 값 68,000원

금년은 나에게 유난히도 마야와 관계가 깊은 해이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야문명의 대표적 유적지인 치첸이차를 둘러보았고, 니카라과의 소설가 지오콘다 베이가 마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살아온 여자》를 마침내 읽었으며, 현대 마야인의 생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리고베르타 멘추의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를 다시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야의 세계에 함몰된 나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 송영복 교수가 번역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돌아보고 연구하여 본인의 손으로 《마야》라는 책을 집필하여 출판한 것이다.

책을 여는 순간부터 작가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마야》는 총 10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야와 메소아메리카의 관계와 마야의 역사, 정치경제, 신들의 전쟁과 마야인들이 사용하던 20진법, 피라미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마야에 대한 입문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현실을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이해의 초석으로 먼저 그들의 역사, 그 중에서도 고대 원주민들의 역사를 이해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고대 역사를 통해 타문화 이해의 방법,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표 의식은 한국인으로서 마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의 관점으로 연결된다.

이런 의식 속에서 《마야》의 작가는 마야의 역사가 서양인들에 의해 그들의 문화적 시각으로 해석되어 왜곡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자신들을 문명의 세계라고 간주한 서양인들이 마야의 세계를 ‘야만’으로 간주하면서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와 편에 따라 착취당했다고 역설한다. 이런 시각은 흔히 알려진 ‘아즈테까’라는 이름을 ‘메시까’로 고쳐 적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구적 인식과 차이를 두려는 목표의식은 28장인 ‘마야연구를 위한 사료의 문제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고대 마야의 사료는 원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것과 이들을 정복한 에스빠냐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의 것은 정복 이전의 것과 정복 이후의 것으로 다시 세분되는데, 정복 이전에 만들어진 사료들은 아직까지도 마야문자의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이 책은 고백하고 있다. 반면 정복 이후에 만들어진 사료들은 서양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마야》의 작가는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마야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신대륙 발견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대부분 에스빠냐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된다. 연대사가, 정복자들, 선

교사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대부분이며,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관료들이나 일반인들의 기록과 여러 지방을 탐험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글쓴이들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에 따라 과장되거나 누락되고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로 인해 발생한 사료들의 한계이며, 라틴아메리카 고대문화의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다.

《마야》의 작가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체적인 시각으로 마야를 연구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료들에 내재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식민화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알려진 원본들이 바로 그런 왜곡의 절차를 거쳐 전승되어 제3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야》의 필자는 마야 연구의 사료에 의문점을 던지지만, 그런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마야 연구의 현실과 작가의 이상 사이의 괴리와 모순은 이 책의 필자가 많은 부분을 디에고 데 란다 신부의 《마야이야기》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란다 신부는 원주민 이교도들을 억압했고, 마야문자로 표기된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이상승배의 도구로 불사른 장본인이다. 이 책의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마드리드의 역사학술원에 부분적인 사본만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1864년에 출간된다. 란다 신부의 책은 유카탄이라는 이름의 기원과 16세기 유카탄 반도의 발견과 정복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곳 마야부족의 전설과 역사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또한 마야문자의 상징을 서술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마야문자를 해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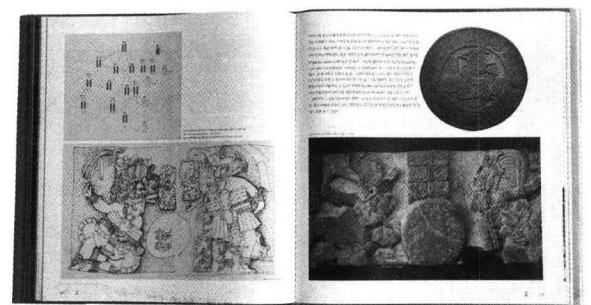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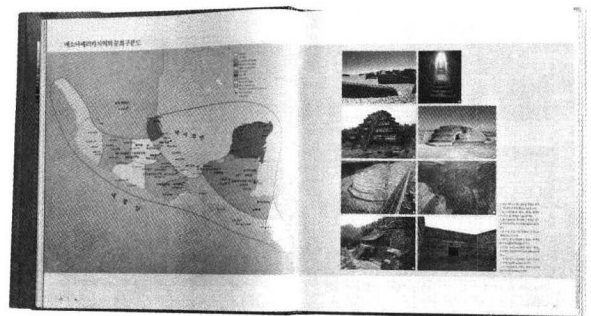
이렇듯 《마야》는 작가의 목표의식과 서술방법의 모순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모순이 비판받아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 책이 지닌 의의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그 어떤 마야학자도 그런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작가가 이국적 취향에 기인한 마야문명의 소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현실과 접목시키고 이해하려는 의식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 이 외에도 이 책은 마야문명에 관한 진귀한 자료와 사진들을 담고 있어서 독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가끔씩 삽입된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도 흥미롭다. 그리고 마야 연구에 관한 기존 학자들의 오독을 읽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이다. 가령 유카탄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언급하면서 필자는 두 가지 판본을 들며 판독의 오류를 설명한다.

흔히들 아메리카의 발견은 우연이 낳은 사건이라고 말한다. 혹자는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페루’에 도착한 스페인 원정대가 한 아이에게 그곳의 이름을 묻자,

“내 이름은 베루이며 이곳은 강(켈루)”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페루라는 이름이 탄생한다. 마야문명의 핵심지역인 유카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마야문자의 해독 역시 현대 마야 학자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독한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 고대 역사는 서양인들의 발명품이며 동시에 상상이다. 그러나 그런 상상을 모두 벗겨내면서 15세기 이전의 문명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야》는 그런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책이다. **한글**

“책을 여는 순간부터 작가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마야》는 총 10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야와 메소아메리카의 관계와 마야의 역사, 정치경제, 신들의 전쟁과 마야인들이 사용하던 20진법, 피라미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이 글을 쓴 송병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했다. 콜롬비아의 카로이 쿠에르보 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하베리아나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임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보르헤스의 미로에 빠지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봄》 《거미여인의 키스》 《꿈을 빌려드립니다》 《탕고》 《난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콜레라 시대의 사랑》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등이 있다.